충북건설업체최초로학교BTL 공사수행

김민호 (주)원건설 대표이사

" 특화된 경쟁력과 틈새시장 공략이 지역 업체의 살 길 "

올 한해지역건설업체에게BTL 민자 사업은 최대의 관심사이면서 또한 눈엣가시이기도하였다. 재정사업으로진행돼지역업체들의주된수주영역이었던 학교 시설, 하수관거 건설 공사 등이 BTL 방식으로 묶이면서 일감 확보가 어려워졌기때문이다. 특히, 지역중소업체들은금융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수주에서 떨어질 경우 보전 받지 못하는 설계 비용이 부담스러워 BTL 민자 사업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못하는실정이다.

이런와중에BTL 사업을선도적으로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견 업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원건설이 주인공. 이 회사는 지난해 용인에서 군인 아파트 공사를 BTL 방식으로 수행한 데 이어 올해에는 충북에서 이 지역 업체로는 최초로 두 건의 학교 공사를 BTL 방식으로수주하였다. 특히, 용인의군인 아파트 공사는 주간사로서 시공을 총괄하기도하였다.

원건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BTL 공사는 송절고등학교 외 2개교 민간 투자 사업과청주교대 기숙사 건설공사로모두올3월계약을체결하였다. 이중송절고와산남고, 목련고를 번들링해추진하는 사업은 고시 금액이 240억원 정도로 원건설의 지분 참여율이34%에달한다.

이처럼 원건설이 BTL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민호사장은 그요인으로' 설계능력 과' 프론티어정신 ' 을꼽았다. 특화된기업경쟁력과남들이하지 않는 분야를 앞서 개척하는 정신을 강조한것이다.

" 기본적으로 저는 설계를 하는 사람이 시공도맡아하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설계팀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곳에서6명의 전문가들이 미리 샵드로잉을 작성합니다. 설계 평가에서 호평을 받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업체들로구성된컨소시엄을만들어충북업체들도서울의대형업체나타지의1군업체에못지않은능력이있음을보여주고싶습니다. "

김민호 사장이 설계 능력을 강조한 데는 이유가있다. 그자신이설계능력을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건축 설계를 전공한 그는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업체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1984년 청주에서 건축사사무소를설립하였다." 시공업체가 애써설계한부분을따라주지못한점이아쉬워 직접 건설을 하였습니다. 좋은 시설, 좋은 집을 설계하여 직접 짓고 싶은 꿈을 실현하고싶었기때문이지요. "

BTL 사업이상으로김민호사장이각별한관심을보이는분야는아파트사업이다. 원건설이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서 175위를차지해 충북에서두 번째로 큰 업체로성장한데는아파트사업이결정적인 역할을하였다. 특히, 충북오창에자체개발사업으로진행한아파트사업은사운을 좌우할 프로젝트였지만, 그는대기업 브랜드와겨루어도뒤지지 않을자신감으로과감히추진하였다. 결과는대성공이었다. 지상 주차장을 없애고 녹지 공간을 법 규정 이상으로 확보하는 등 빼어난 단지 경관이 입주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받기도하였다.

지역에서의 주택 사업 성공에 고무된 김민호 사장은 수도권 진출 및 자사 아파트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자체 브랜드인' 허밍하우스 를개발하였다. 이브랜드는현재분양 준비 중인 오송과 청라지구 아파트에 적용될예정이다.

" 값싼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입주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명품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그래서고용창출등으로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회사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할것입니다. '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